KOTRA자료 20-094

2020 국별 진출전략

파나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3

1. 개요 ······ 3
   - 가. 시장 전망 ······ 3
   - 나. 주요 경제지표 ······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
   - 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 경기부양책 추진 ······ 4
   - 나. 글로벌 물류, 농축산업, 전시 컨벤션 등 주요 국가 산업 집중 육성 ······ 4
   - 다.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의 대(對)파나마 수출 확대 ······ 5
   - 라. 파-중 수교 3년 차, FTA 협상 등 본격적인 경협 가속화 ······ 6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8
2. 시장 분석 ······ 12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2
   - 나. 교역 ······ 13
   - 다. 투자진출 ······ 15
   - 라. 프로젝트 ······ 17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 20
   - 가. 교역 ······ 20
   - 나. 투자 ······ 21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22

Ⅲ. 진출전략 ······ 25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25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26
3. 한-파나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32
4. 진출 시 유의사항 ······ 36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 37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39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40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41

부 록

對파나마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 42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新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및 구리 수출 개시로 완만한 경제성장 전망

- 2019년 7월 출범한 新정부는 제2대 국정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선정,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착수할 계획
  - 과학·기술 중심 교육 투자,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 의약품 수입 간소화 등 약 125개에 달하는 세부적인 액션플랜을 통해 추진할 예정임
- 또한, 2019년 6월 꼬브레 광산 첫 수출 개시로 주재국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
  - 연간 광물 생산규모는 전체 GDP의 3% 수준으로 세계 14위의 구리 생산국 의미함

정부 재정적자 악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색 국가 지정 등은 리스크 요인

- 2019년 재정적자 GDP 대비 3%대 전망, 국내법 준수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이 불가피하며, 공공사업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 예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TAT)는 파나마를 회색 국가로 지정, 글로벌 은행 62개사가 진출한 중남미 금융업의 메카로써 향후 리스트 제외 여부가 주요

나.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 구	백만 명	3.85	3.91	3.98	4.04	4.1	4.16	4.22	4.28
명목 GDP	십억 달러	45.60	49.92	54.09	57.96	62.28	65.21	70.16	75.49
1인당 명목GDP	달러	11,842	12,757	13,607	14,356	15,198	15,679	16,629	17,645
실질성장률	%	6.9	5.1	5.7	5	5.3	3.9	6	5.5
실 업 률	%	4.1	4.8	5.1	5.5	6	6.4	6.1	6
소비자물가상승률	%	4	2.6	0.1	0.7	0.9	0.8	1.5	2
재정수지(GDP대비)	%	-2.2	-3.1	-2.3	-1.8	-1.9	-2	-2	-1.7
총수출	백만 달러	827	811	696	636	660	672	345	-
(對韓 수출)	〃	142	90	47	30	21	25	18	-
총수입	〃	12,785	13,593	12,136	11,696	12,724	13,233	6,591	-
(對韓 수입)	〃	539	463	438	346	405	254	115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11,958	-12,782	-11,440	-11,060	-12,060	-12,561	-6,246	-
경 상 수 지	억 달러	-44.01	-67.3	-42.74	-46.34	-49.41	-55.32	-37.3	-30.17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달러 페그제 운용)							
외국인직접투자 wb	억 달러	37.99	49.84	51.19	55.84	48.26	65.78	-	-

주1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주2 : 수출입의 경우, 편의치적선(MTI 761) 통계 제외
자료 : IMF, Global Trade Atlas, World Bank, 파나마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 경기부양책 추진
- 글로벌 물류, 농축산업, 전시 컨벤션 등 주요 국가 산업 집중 육성
-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의 대(對)파나마 수출 확대
- 파-중 수교 3년 차, FTA 협상 등 본격적인 경협 가속화

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 경기부양책 추진

역사상 최대 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ㅇ 2019년 7월 라우렌띠노 꼬르띠소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약 20억 불 규모의 역사상 최대 규모 국채 발행에 성공

- 정부는 기존 공공사업 채무 상환을 통해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정임

* 파나마 역사상 ‘최대 규모, 최저 이율(10년 물 3.16%, 40년 물 3.87%)’ 국채 발행 성공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착수 가속화 기대

ㅇ 자금확보로 그간 지연되던 메트로 3호선(211.3억 불), 도쿠멘 제2공항(9.1억 불), 제4 교량(5.7억 불) 등 대형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조속 재개 예정

- 상기 공공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전 정권으로부터 인수받은 약 63.5억불 규모의 21개 프로젝트 중 우선순위를 매겨 추진 속도를 높일 전망임

창조적 산업 육성을 위한 오렌지 경제(Economia Naranja) 육성책 제안

ㅇ 멀티미디어, 시청각 산업, 문화/예술 관광 등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인 ‘오렌지 경제(Economia Naranja)’의 육성을 위해 창조산업법안 마련 계획

- 이를 통해 기회 은행(Banco de Oportunidades) 창설을 통해 청년 벤처사업가들에게 중장기 저리의 융자 및 각종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

* 오렌지 경제(Economia Naranja)란 콜롬비아 대통령인 ‘이반 두케’가 제안한 개념으로 통상 시각 예술, 멀티미디어, 패션, 출판, 게임 산업 등 지적재산권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 군을 의미

나. 글로벌 물류, 농축산업, 전시 컨벤션 등 주요 국가 산업 집중 육성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을 위한 종합육성책 ‘ELNP 2030’ 추진

ㅇ 글로벌 물류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와 IDB가 협력, 해상·육상·철도·항공 전반에 걸친 물류 산업 종합육성책인 ELNP 2030을 발표

- 기존의 일방향(서 → 동) 물류흐름에서 탈피해 전방향(동 → 서, 남 → 북, 북 → 남)에 걸친 연계적 수요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신사업 개발계획임

ㅇ Chiriqui 등 서부 상업 도시 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수도와의 연계 강화

- (육상) 대(對)북중미 물류를 위한 제2의 거점으로 지정, 이원화 작업 착수함

  * 물류시스템 및 도로 정비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한 주요 산업인 농업 중심 육상운송 진흥

- (철도) 중국, 중부(수도) – 서부(제2 상업 도시)를 잇는 41억 불 규모 철도 프로젝트 제안함

  * 중국은 과거 파나마시티–콜론자유무역지대 간 철도를 건설한 바 있음

농축산업 생산성 증가 및 소규모 농가의 상업화를 위한 투자 확대

ㅇ 다수의 소규모 농축가가 고수하는 현재의 노동집약적 생산모델에서 탈피해 생산물의 상품화, 판로알선 및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한 장기적 수출 도모

- 첨단장비 및 기술을 접목한 현대적 방식의 생산모델 도입으로 생산성 개선

- 농축산매매청(IMA)을 통한 소규모 농축가 생산물의 가공, 판매 및 수송 지원

ㅇ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도입

- 농축개발은행(BDA), 농축보험청(ISA) 등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투자 유도 및 정부 주도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확대

중미 최대 규모 컨벤션 센터 개소로 전시 컨벤션 거점 위상 강화

ㅇ 약 3만m^2에 달하는 중미 최대 규모의 아마도르 컨벤션 센터 개소를 통해 전시 컨벤션 산업 육성과 부가 관광수입 창출 기대

* 중남미 최다 항공 취항편, 물류·금융의 중심지로 전시 컨벤션 산업이 잘 발달해 있음

다.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의 대(對)파나마 수출 확대

한–중미 FTA 발효(예정)에 따른 우리 측 수혜 품목 다수

ㅇ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중미 5개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이뤄 참여

- 파나마의 경우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과의 FTA 체결내역이 없어 시장선점 가능성 또한 높음

  * 국별 발효 현황 : 2019.10.1일 발효(니카라과, 엘살바도르), 2019.11.1일 발효(코스타리카), 2020.1.1일 발효(온두라스), 미발효(파나마, 국회비준 준비중)

ㅇ 한–파 양측 모두 품목 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을 개방, 한국은 11,707개, 파나마는 8,416개 품목의 수입관세 발효 후 19년 내 완전 철폐

한-중미 FTA 중소기업 유망 수혜 품목

품목군	양허유형*	시장동향 및 전망
건설 중장비	A	•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및 민간 건설사업 중심의 경기 부양 사례가 많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대(對)파나마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임
자동차부품	A~E	• 완충기, 클러치, 방열기 등 다수 자동차부품 점진적 관세 철폐 • 국산 차 점유율(신차, 중고차 포함) 약 35~40% 수준이며, 중고차 거래 또한 활발해 부품 수요가 꾸준함
타이어	C~E	• 한국은 파나마의 제2의 타이어 수입 국임(1위 : 중국) • 중국과의 가격경쟁 심화로 시장점유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한국산 품질에 대한 신뢰가 있어 관세철폐는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화장품	E	• 백화점, 대형마트 등 한국 화장품을 일부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건부 등록을 거치지 않아 소량만 판매 중 •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은 높으나, 아직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지 않은 편 (한국 화장품 진출 브랜드숍 없음)
의료기기	A~B	• 인근국 대비 양질의 의료수준을 보유해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며, 신정부의 의료 접근성 개선 의지 피력 • 대다수 품목 대상 10~15% 수준의 관세 철폐

* 품목군 내 품목별 전반적인 양허유형을 기재함
** 양허유형 : A(즉시 철폐), B(3년 내 철폐), C(5년 내 철폐), D(7년 내 철폐), E(10년 내 철폐)

라. 파-중 수교 4년 차, FTA 협상 등 본격적인 경협 가속화

파-중 FTA 제5차 협상까지 완료, 신정부 대(對)중국 정책 향방 주시 필요

ㅇ 2018년 1월, 수교 이래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 돌입, 현재 5차 협상까지 완료

– 이전 바렐라(Varela) 정권은 자국 내 철도 건설 프로젝트, 제4 교량 프로젝트, 중국 항공사의 직항노선 개설, 최혜국 지위 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확대하였으나, 신정부는 출범 이후 아직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중국의 제1, 2선 도시를 잇는 대형 철도 프로젝트 투자 제안

ㅇ 2019년 3월, 중국의 China Railway Design 사는 중부에 위치한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에 위치한 제2 도시 다비드를 잇는 대형 철도 프로젝트 제안

– 총 391km 길이, 22개 구간(역)에 달하며, 약 41억 불 규모의 프로젝트임

* 파나마 동부 지역은 대부분 미개발 산간지대로 사실상 주재국 전역을 연결

– 동 프로젝트는 파나마 정부가 추진 중인 물류 산업 육성정책의 핵심 내용인 육로를 통한 중부–서부도시 간 통합 취지에 부합해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임

양국 간 비즈니스·외국인 직접투자·관광 등 협력 분야 점진적 확대추세

- 2019 연말 개최될 예정인 China-LAC Business Summit은 역대 최대 규모로, 2천여 개의 중국 기업이 참가해 약 4천만 불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전망
  - 중국의 관심 투자 분야는 항만 개발, 물류, 전력, 부동산 개발, 전자제품 조립 등 상당 부분 파나마 정부의 주력 추진 분야에 해당됨
    * 중국기업과의 경쟁 격화 예상 분야 : 지하철, 교량, 전력, 토목 등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
- 관광 분야의 경우 중국은 양국 직항 노선을 취항하고, 파나마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대상 단체 관광 상품판매 허용 등 중국인 관광객 유입 노력 중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역대 최대 규모 국채발행 및 인프라 프로젝트 가속화를 통한 경기 회복 주도
○ 신정부의 친미성향으로 대중(對中) 경협 가속화에 제동 전망

가. 정치 환경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

○ 파나마는 1903년 콜롬비아로부터 독립 후 운하를 개발하여 조차권을 미국에 이양하면서 자연스레 미군 주둔 환경 조성

– 몇 차례 군부 독재 정부가 들어섰으나, 1989년 미국의 침공으로 군부정권은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 현재는 국민 직접선거 기반 대통령제를 운영하며, 임기 종료 후 10년 내 연임 또한 불가

제1야당 후보자 대통령 당선, 국회 장악에 따른 원활한 국정 운영 기대

○ 2019년 5월, 대선 및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제1야당이었던 민주혁명당(PRD) 꼬르띠소(Laurentino Cortizo) 후보자가 33.4% 득표율로 당선

– 국회의 경우 총 71개의 의석수 중 PRD 당이 35개, 연합 정당인 Molirena가 5개 의석을 차지하며, 여대야소 형태로 향후 원활한 국정 운영이 예상됨

新정부 외교행보 주목, 전통적 친미 성향 Vs 대중(對中) 수교 2년 차 FTA 등 경협 강화

○ 파나마는 본래 친미 성향의 국가나, 전 바렐라(Valera)정권 시절 대중(對中) 수교, FTA 협상 등 이례적인 친중 행보를 보인 바 있어 新정부의 향후 외교행보 주목 필요

– 꼬르띠소(Cortizo)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방미일정을 갖은 바 있으며, 아직 대중(對中)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바는 없음

나. 경제 환경

2020년 파나마 경제성장률 5.5%대 전망

○ IMF는 2020년 파나마의 GDP 성장률을 5.5%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新정부 출범에 따른 단기적 경기 부양효과, 광물 수출 본격화, 중장기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에 기인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	5	5.3	3.9	6	5.5

자료 : IMF(*는 전망치)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착수, 내수 및 투자 활력 기대

○ 파나마는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운용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통화정책 활용이 불가하여 과거 수년간의 경기 악화가 자연스레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져 내수 및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

내수 및 투자관련 지표 추이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월간경제활동지수	4.23	4.31	6.18	3.21	3.08
신차등록 건수	30,899	33,163	29,287	25,521	23,520
부동자산계약 건수	89.080	87.833	79.896	73.797	67.722
법인수	20.444	18.623	15.153	11.416	10.190

자료 : 파나마 통계청(상반기 누계기준)

꼬브레 파나마, 광물 수출 가속화로 경상수지개선 및 교역량 확대 기대

○ 2011년 착수한 꼬브레 파나마 광산개발 프로젝트의 완공에 따라 2019년 6월 첫 광물 수출을 개시해 향후 주재국 경제의 新성장 동력이 될 전망

– 34년간 지속생산 가능, 연 20억 불 수출, 연간 GDP 3% 기여, 1만 3천 명 직간접 고용효과 유발

다. 산업 환경

산업 구조

○ 세부 산업별 비중은 1차 산업(농임·목축업, 어업)이 약 1.9%, 2차 산업(제조, 건설, 광업)이 약 24.8%, 3차 산업(서비스업)이 약 73%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형성

- 1차 산업은 총 GDP의 약 2%를 차지하며, 주요 분야 및 품목은 농업(쌀, 야채, 과일, 커피, 사탕수수 등), 어업(새우, 랍스터, 생선), 축산업 등임
- 2차 산업은 총 GDP의 약 25%를 차지하나, 제조업 비중은 5%로 미미하며, 주로 가공식품, 소시지, 주류, 플라스틱(비닐, 병) 등에 불과함
  * 다만, 건설업 비중은 약 18%로 자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약 2%의 낮은 비중을 차지했던 광업은 꼬브레 파나마 광산의 광물 생산개시로 향후 비중이 GDP의 3%까지 확대될 전망임
- 3차 산업은 총 GDP의 약 7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콜론자유무역지대 등 보세구역을 활용한 물류업의 발달, 62개의 글로벌 및 내수 은행으로 형성된 금융업 등이 주요 산업임

주요 산업별 GDP 내 비중

산업별	전체GDP비중		산업별	전체GDP비중	
	2018	2019.1분기		2018	2019.1분기
도소매업	18.0%	17.7%	제조업	5.2%	5.1%
건설업	16.7%	18%	호텔·요식업	2.3%	2.3%
물류·통신업	13.6%	13.7%	광업·채석업	1.8%	1.7%
부동산임대업	13.2%	12.6%	농임업·목축업	2.0%	1.7%
금융업	7.4%	7.4%	어업	0.4%	0.2%

자료 : 파나마 통계청, 재정경제부

라. 정책·규제 환경

전통적으로 상품·금융 시장의 활발한 개방정책 추진

- 미미한 제조업 기반 및 서비스 산업 편중 산업 구조로 전통적으로 상품·금융 시장의 활발한 개방경제 추구하며, 규제 수준 또한 인근국 대비 낮은 편
  - 내수 시장은 협소하나 운하와 콜론자유무역지대 등 보세구역을 활용한 중계무역이 발달함
  - 평균수입관세는 8%대로 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수입관세가 낮고, 시장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의 경우 가격 등 경쟁이 치열함
- 중미 최대 금융 중심지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더불어 각종 기업 활동 관련 규제 개혁에도 적극적
  - 2019년 5월 기준 중남미 내 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다국적기업(SEM) 총 147개사가 진출해 있는 상황임

공공조달법 개정,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가입 등 투명성 제고 정책 도입

- 출범 신정부는 공공입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재량권 감소, 공공계약 진행 추이 대국민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공공조달법 개정 추진

- 주재국 공공입찰의 경우 스페인, 브라질 등 유사 문화권 내 기업들이 수주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입찰 및 선정 과정이 다소 불투명하고, 입찰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의 재량권이 많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 있음

○ 또한, OECD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가입 등 대외 금융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 동 협정은 주재국 소재 기업들의 금융정보를 협정국간 공유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하는 회색 국가 리스트에 지정되어 국가 및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탈피 노력을 진행 중임

2 시장 분석

- ○ 중남미 내 高성장 국가, 과거 10년간 평균 6%대 GDP 성장달성
- ○ 1인당 GDP 1만 6천 불의 최상위 수준 개별인구 소비력 보유
- ○ 미 달러를 공용화폐 사용으로 환위험이 적은 편
- ○ 자유무역 및 금융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국가로 늘 기회와 경쟁이 공존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과거 10년간 평균 6%대 고성장, 인구는 작지만 소비력을 갖춘 중산층 보유

○ 과거 10년간 평균 6%대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9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1만 6천 불로 중남미 국가 중 최상위 수준

미 달러 공용화폐 채택, 여타 국가 대비 환위험 현저히 낮아

○ 파나마는 1904년 공용화폐로 미 달러를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중남미 국가가 겪는 대미(對美) 환율 폭락 등의 환위험에서 자유로워 안정적인 수출대금 회수가 가능

역내 항공·해상 물류허브(Hub)로 중남미 진출거점 역할 수행

○ 파나마 운하, 콜론자유무역지대, 토쿠멘국제공항 등 잘 갖춰진 인프라를 통하여 태평양과 대서양, 북중미와 남미를 잇는 거점 역할 수행

- 콜론자유무역지대 등 보세지역 내 물류창고, 집적에 따른 인근국 재수출 활발
- 대형선박화 추세에 발맞춘 확장 운하 개통으로 물동량 지속 증가
- 토쿠멘 제2 국제공항 개소 및 물류시스템 개선에 따른 항공 화물 확대 예상

제조업의 미발달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기초 공산품까지 수입하는게 보편적

○ 파나마의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약 5% 수준으로 기초 공산품까지 수입하는게 보편적이며, 수출액 대비 수입액이 약 20배에 달함

○ 평균 수입관세는 약 8.25% 불과하며, 농산물 외 품목은 중남미 국가 중 최저 수준의 관세율 적용

- 제도적인 진출 장벽은 없으나, 경쟁이 치열해 가격·품질을 넘어 디자인 수준까지 바이어들의 안목이 높은 편임

나. 교역

파나마 수입 동향

ㅇ 미미한 제조업 기반으로 수출대비 수입규모가 약 20배에 달하며, 약 5%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수입규모 또한 꾸준한 성장세 시현 중

– 주요 수입국은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중남미 인근국 중심이나,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많은 편임

* 중국의 경우, 2018년 파-중 수교 이후 수입 비중 10%를 초과했으며, 향후 지속 증가할 전망

– 주요 수입품목은 연료, 자동차, 의약품, 철강, 무선기기 등으로 농산물, 어류, 목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 및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음

파나마 교역추이

(단위 : US$백만,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월
수출	696	636	660	673	288
수입	12,136	11,696	12,723	13,232	5,430
무역수지	-11,440	-11,060	-12,066	-12,559	-5,142

자료 : 파나마 통계청

파나마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 US$백만, %)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분기
1	미국	3,137	2,990	3,084	3,281	808
2	오일자유무역지대	1,160	1,089	1,374	1,713	370
3	중국	1,158	1,070	1,242	1,336	284
4	콜론자유무역지대	1,060	968	933	937	211
5	멕시코	621	618	624	640	161
6	코스타리카	454	454	466	451	111
7	콜롬비아	361	362	324	325	80
8	한국	428	317	449	195	49
9	수출가공 지역	263	316	438	447	133
10	일본	292	314	280	270	59
전체		12,136	11,696	12,723	13,233	3,167

자료 : 파나마 통계청

10대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백만,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분기
경유	537	492	637	795	195
휘발유	512	484	575	687	141
기타 연료	398	421	426	673	111
자동차	671	721	514	610	216
의약품	330	369	378	450	153
철강 및 구조물	379	144	202	223	47
옥수수	86	72	84	96	17
핸드폰 및 무선기기	81	79	89	92	29
콩가루	37	74	67	85	-
송수신장비	76	34	48	67	37
합계	3,107	2,890	3,020	3,778	946

자료 : 파나마 통계청

ㅇ 파나마의 수입 통계는 보세구역인 콜론자유무역지대와 구분되어 집계되며, 동 지역으로의 수입은 주로 인근국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것임

- 주요 수입국은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 멕시코 등임
- 주요 수입품목은 의약품, 섬유제품, 타이어 등이며, 쇼룸 중심으로 구성된 상업 지역으로 저가의 섬유제품, 소형기기 등이 도매 거래되는 경우가 많음

콜론자유무역지대 교역추이

(단위 : US$백만,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월
수입	10,374	9,238	9,215	9,773	3,683
재수출	11,347	10,418	10,433	10,808	3,980
무역수지	973	1,180	1,218	1,035	297

자료 : 파나마 통계청

주요 경쟁국 및 경쟁 품목 동향

ㅇ 타이어, 자동차부품, 휴대폰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품의 약진

- 중국의 경우 2010년부터 미국에 이어 제2의 수입국으로 자리 잡아 2018년에는 수입 비중 10%를 돌파하며,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ㅇ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확대에 따른 건설 중장비, 전력기자재 등 경쟁 심화 전망

- 파나마는 2018년 중국과 수교를 맺고,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례로 파-중 FTA 논의 또한 현재 양국 간 5차 협상까지 마친 상황임
- 향후 △원산지규정, △시장접근, △서비스 무역, △투자, △금융 부문의 합의 필요함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진입장벽

ㅇ 높은 대외수입 의존도로 무역개방도가 높은 시장
- 전통적인 개방경제 및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음
- 주재국 주요 생산 품목인 농산품, 육류를 대상으로 수입규제조치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의 수출품목은 통상 대상이 아님

ㅇ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대상 보건부 등록 절차 불투명
- 파나마는 여타국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품목에 대해 보건부 또는 식품위생국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제품 등록에 소요되는 공식적인 시간과 비용은 다른 중남미 국가와 비슷한 편이나, 선임 변호사/로펌에 따라 변동 폭이 커 주의가 필요함

우리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및 시사점

ㅇ 국내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및 중미 진출 확대
- 포스코건설의 파나마 내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더불어 중소기업 한일엔브이의 가설오피스(컨테이너) 건설 협력을 통해 윈윈효과 창출
- 대기업 포스코건설의 경우 기존에 현지 EPC 추진 경험이 있는 양질의 협력기업 (한일엔브이)을 확보하고, 최초 현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을 경감
- 중소기업 한일엔브이는 추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수출 성과를 한층 확대하는 효과를 이뤄냄

ㅇ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기자재 납품확대 동시 추진
-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추후 추가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대·중소 동반 진출을 통해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내 입지 확보
- 국내 협력업체 연계 진출 기반 마련 및 연관 제품의 수출 가능성 제고

다. 투자진출

중미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국, 과거 6년 새 약 56% 가파른 성장

ㅇ 파나마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3년 약 35억 불 규모에서 2018년 55억 불 규모로 6년 새 약 56%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중미 전체(SICA 회원국) 유치액 비율 또한 30.2%에서 40.1%까지 확대
- 2018년 기준, 중미 내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비중은 파나마(40.1%), 도미니카공화국(18.3%), 코스타리카(15.4%) 순임

*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벨리즈

중미(SICA 회원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 US$백만)

구분/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파나마	3,567	4,459	4,556	4,866	4,569	5,549
전체(SICA)	11,802	13,521	13,305	13,081	14,766	13,819
전체대비 비중	30.22%	32.98%	34.24%	37.20%	30.94%	40.15%

자료 : UNCTAD

ㅇ 중남미 항공·물류·금융 허브의 이점을 활용해 유수 다국적 기업들이 지역본부 형태로 진출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물류·항만, 공공교통, 전력 등 인프라 분야, 금융서비스, 부동산 등

–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다국적기업 대상 각종 면세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중임

* 2019년 기준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로 유치된 147개 기업을 통해 10억 불 이상의 투자유치 및 6천여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

파나마 외국인 직접투자(FDI) 추이

구분/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U$백만)	3,567	4,459	4,556	4,866	4,569	5,549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23.5	25.0	2.2	6.8	-6.1	21.4
한국의 대(對)파나마 투자금액(U$백만)	234	272	231	42	48	54
한국의 대(對)파나마 투자 증가율(%)	-56.5	16.2	-15.0	-81.8	2.7	12.5

자료 : UNCTAD, 수출입은행

新정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민관합작투자법안 상정 추진 중

ㅇ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골자로 하는 민관합작투자법안(Ley de Asociacion Publica Privado) 상정을 준비 중

– 보다 많은 민간투자가 유입되어 그간 수도권에만 편중되던 투자에서 벗어나 지방 발전 사업에도 신규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ㅇ 외국인 직접투자 적극 유치 정책으로 다양한 국가 대상 투자진출 개방

– 파나마 주요 투자 국가는 미국 외 유럽 국가(영국, 스페인), 인근 중남미 국가(콜롬비아, 멕시코), 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등 다양함

– 중국의 경우 양국 수교 이전까지 주로 홍콩계 기업을 통해 파나마에 투자해 왔으나, 2017년 6월 중국과 정식 수교를 통해 향후 인프라,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파나마를 중미·카리브 지역 진출 거점으로 활용해 왔으며, 최근 항공기 정비, 공공교통 인프라 사업 참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투자진출 진입장벽

ㅇ 파나마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국가로 투자진출 시 특별한 진입장벽 無

– 다만, 숙련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재국 노동법상 외국인 고용 비율을 제한하고 있어 고급 노동력 확보에 애로사항 발생함

– 외국인 고용은 일반직의 경우 전체의 10%, 기술·전문직의 경우 15% 내에서 허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현지 노동청으로부터 근로허가증을 취득해야함

우리기업 진출 성공 사례

ㅇ 파나마 진출 국내 타이어 기업의 경우 파나마 지사 설립 이후 약 40년간 에콰도르 등 인근 중미국까지 관할하며, 파나마를 거점으로 시장 범위를 확장

– 최근 파나마 내 콜론자유무역지대 물류기지를 활용하여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향발 재수출 전략을 추진 중임

– 경제성장이 양호한 중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파나마의 물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북미–중남미 및 태평양–대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파나마의 이점을 살려 물류 거점으로 활용

– 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한–중미 FTA를 통한 관세 인하를 홍보하고, 중고가 수입품 타이어 취급 바이어 대상으로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활동 등 브랜드 인지도 확산 전략 구사임

라. 프로젝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ㅇ 파나마 정부는 주재국의 국제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하철, 교량, 전력, 공항, 도로, 전력 등 물류 인프라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추진 중

ㅇ 파나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중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유망한 프로젝트는 지하철 3호선, 전력(발전·송전), 아동병원, LNG 발전소·터미널 등임

한국기업 파나마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현황

프로젝트	내용
Miraflores 디젤발전소 건설	• 발주처 : 파나마 운하청(ACP) • 수주기업 : 현대중공업 • 발전소 위치 : Miraflores 인근(파나마시티) • 규모 : 70MW(1.4억 불) • 참고사항 : 2013년 완공
운하 확장공사 수문 및 구동장치 설비 공급	• 발주처 : GUPC(Grupo Unidos por El Canal) • 수주기업 : 현대삼호중공업 • 규모 : 1.9억 불 • 참고사항 : 2016년 4월 완공
파코(Panama-Cobre PACO) 석탄화력발전소	• 발주처 : MPSA(Minera Panama S.A) • 수주기업 : SK건설 • 발전소 위치 : Punta Rincon(콜론주) • 규모 : 300MW(약 6억 불) • 참고사항 : 2017년 완공 예정(파코 구리광산에 전량공급)
싼타리타(Santa Rita) 디젤발전소 건설 사업	• 발주처 : Jinro.Co. Ltd(Etesa로 부터 수주, 원청기업) • 수주기업 : 한일엔브이 • 발전소 위치 : Santa Rita(콜론주) • 규모 : 58MW(약 5천만 불) • 컨소시엄 : 한일엔브이와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 구성 • 공사기간 : 2015년 6월~2016년 2월
AES 천연가스 발전소 및 LNG터미널 건설	• 발주처 : AES(Etesa로부터 수주, 원청기업) • 수주기업 : 포스코건설 • 발전소 위치 : 콜론시 • 규모 : 381MW(약 6.5억 불) • 공사기간 : 2016년 4월~2018년 8월(준공식 2018년 8월 17일)

자료 : 파나마 재정경제부(MEF), 파나마 공공기관 발주처 포럼

ㅇ 이외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지하철 3호선, 제4 교량, 아동병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전력, 보건 관련 국책급 프로젝트 다수 추진 중

2019~2020년 파나마 내 주요 추진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내용
메트로 3호선 건설	• 발주처 : 파나마 지하철공사 • 규모 : 26.7m, 14개역(약 21억 불) • 공사기간 : 2019~2023년(5년)
제4교량 건설	• 발주처 : 파나마 공공사업부(MOP) • 규모 : 3.5km, 8차선(약 14억 불) • 공사기간 : 약 42개월
파나마 아동병원 건설	• 발주처 : 파나마 보건부(MINSA) • 규모 : 병상 수 약 525개(약 4억 불) • 공사기간 : 2019~2020년

프로젝트	내용
Isla Telfers LNG 발전소 건설 (EPC 하청)	• 발주처 : AES Panama • 규모 : 650MW 규모 발전소(약 15억 불) • 공사기간 : 2020~2023년
Mi Bus 대중교통용 차량 운영지원시스템(OSS) 구축	• 발주처 : 파나마 메트로공사 자회사(Mi Bus) • 규모 : 버스 약 1,500대 대상 OSS 시스템(약 1백만 불) • 공사기간 : 2019~2020년
산미겔리또 보안카메라 및 운영센터 구축	• 발주처 : 산미겔리또 시청(Municipio de San Miguelito) • 규모 : IP 카메라 및 S/W(약 1백만 불) • 공사기간 : 2019~2020년

자료 : 파나마 재정경제부(MEF)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가. 교역

한국의 대(對)파나마 교역 동향

ㅇ 인근국 경제악화 전이 및 주요 인프라 사업 완공에 따른 수출 하락세 지속

–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경제 악화 지속에 따른 중남미 경제 둔화

– 운하 확장, 토쿠멘 제2공항, 메트로 2호선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완공에 따른 기자재 수요 둔화

한-파나마 교역추이

(단위 : US$천)

연도	수출	수입	교역액
2014년	464,277	90,482	554,759
2015년	438,399	46,741	485,140
2016년	346,770	30,111	376,881
2017년	405,201	21,057	426,258
2018년	255,072	25,425	280,497
2019년(6월 누계)	115,933	17,773	133,706

자료 : 한국무역협회/편의치적선(선박) 제외 통계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형태의 수출 구조로 교역 확대 잠재력 다분

ㅇ 양국 간 주요 수출품목의 상대국 보호 산업과의 관련성 미미

– 파나마의 주요 수출품목은 열대 과일, 설탕, 커피, 고철스크랩 등이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타이어, 건설 중장비 등으로 상호 간 상대국의 보호 산업과의 관련성이 낮아 수출 확대 가능성 다분함

ㅇ 한국의 2019년 상반기 수출은 건설 중장비, 타이어 등이 각각 -46.4%, −17.3% 감소하였으나, 승용차는 18.7% 증가하며, 작년 동기 대비 총액은 유사한 수준

한-파나마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S$천, %)

연번	MTI	품목명	2018년		2019년(6월 누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1	7411	승용차	63,645	-29.7	27,738	18.7
2	3203	타이어	32,930	11.5	16,201	-17.3
3	7420	자동차 부품	12,966	1.5	6,036	-5.7
4	0154	연초류	7,229	547.9	5,207	232.2

연번	MTI	품목명	2018년		2019년(6월 누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5	6111	철강	10,220	188.6	4,328	-1.9
6	8352	축전지	7,561	-22.1	3,933	-5.0
7	7412	화물자동차	10,936	-9.5	3,877	-2.4
8	7251	건설 중장비	11,902	-0.5	3,768	-46.4
9	7111	원동기	6,509	0.5	3,687	8.1
10	7131	공기조절기	7,981	-45.9	2,827	-24.3
전체	-	총계	255,072	-37.0	115,933	-1.0

자료 : 한국무역협회/편의국적선(선박) 제외 통계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선점기회 적극 활용

- 한-파 양측 모두 품목 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의미하며, 한국은 11,707개, 파나마는 8,416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발효 후 19년 내 완전 철폐
  - 건설 중장비,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 이외 화장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음료 등 중소기업 품목도 관세 대폭 철폐함
  - 유통·건설·콘텐츠 등의 서비스 시장과 에너지·인프라·건설 등의 정부조달 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여 기존 미국 및 브라질·스페인 계열에 장악된 시장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함

    *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개방으로 중미 지역 대규모 건설사업 참여 가능

나. 투자

한국의 대(對)파나마 투자 동향

- 우리나라의 대(對)파나마 투자는 2019년 1분기 누계기준 2,836백만 불 수준
  - 주요 투자 건으로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캐나다 First Quantum Minerals 사의 자회사(Minera Panama : MPSA)를 통해 파나마 구리광산(Cobre Panama) 개발 지분의 10%(약 5.2억 불) 보유 중임

한국의 대(對)파나마 투자 동향

(단위 : US$백만)

업종대분류	투자금액	업종대분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53	제조업	51
도매 및 소매업	303	금융 및 보험업	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25	운수 및 창고업	758
총계	2,83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9년 1분기 누계기준)

ㅇ 2019년 6월 기준, 주재국 진출 한국기업은 총 17개사로 지역본부 형태 운영 다수

– 주재국 수출 및 인프라 수주활동 외 중미·카리브 및 남미 국가까지 관할국으로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다수임

* 진출 한국기업 현황 :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대우(동부대우전자), 삼성물산, 효성, 포스코대우,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판토스, 삼성SDS, 한라홀딩스, 신스틸, 현대중공업, KEB하나은행, 한일엔브이, 제일기획, 상신브레이크 등 17개사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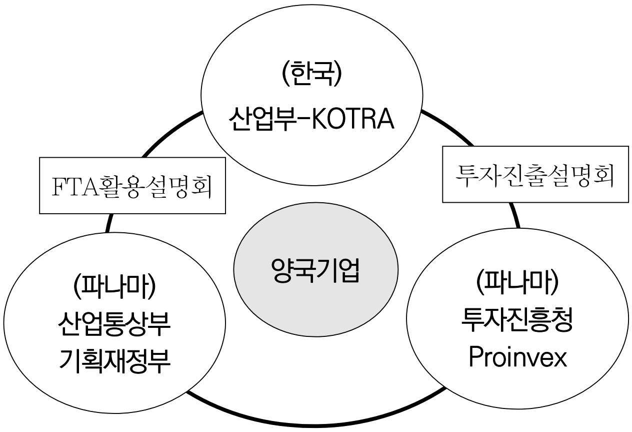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활용, 쌍방향(Two-Way) 수출지원 체계 구축

ㅇ 국내 주요 전시회 연계 민관합동 사절단 구성 및 연례 정기방한 초청

– (민) 서울 푸드 내 국가관 부스 유치 및 수입상담회 지원

– (관) 산업부, 투자진흥청 등 주재국 TPO 협력 방한 연사초청 설명회 개최

* 과거 방한내역 : (2017년) 최초의 국가관 유치, (2018년) 국가관 유치, 한-중미 FTA 활용방안 방한 연사초청



양국 간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분석

o 양국 모두 상대국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자국 내 생산량이 적어 대다수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중미 FTA 체결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활용해 수입량 확대 혹은 현재 수입 중인 거래선 변경을 고려하도록 유인 가능

(한)주요 수출품목	(파)시장 동향
자동차	전량 수입
핸드폰	전량 수입
건설 중장비	주로 수입산 의존
타이어	주로 수입산 의존

(파)주요 수출품목	(한)시장 동향
열대과일	전량 수입
고철스크랩	수요 대비 생산 부족
커피	전량 수입
목재	수요 대비 생산 부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

ㅇ 주재국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협력 기반 구축

– 주재국 전략 분야(SOC, 물류, 전력, 보건의료 등) 대상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및 대·중소 동반진출을 통한 중소 협력업체 발굴 지원함

– 유력 발주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기회 선점함

– 민관 합동 사절단 구성을 통한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추진함

2019~2020년 파나마 내 주요 추진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내용
메트로 3호선 건설	• 발주처 : 파나마 지하철공사 • 규모 : 26.7m, 14개역(약 21억 불) • 공사기간 : 2018~2022년(5년)
제4교량 건설	• 발주처 : 파나마 공공사업부(MOP) • 규모 : 3.5km, 8차선(약 14억 불) • 공사기간 : 약 42개월
파나마 아동병원 건설	• 발주처 : 파나마 보건부(MINSA) • 규모 : 병상 수 약 525개(약 4억 불) • 공사기간 : 2019~2020년
Isla Telfers LNG 발전소 건설 (EPC 하청)	• 발주처 : AES Panama • 규모 : 650MW 규모 발전소(약 15억 불) • 공사기간 : 2020~2023년
Mi Bus 대중교통용 차량 운영지원시스템(OSS) 구축	• 발주처 : 파나마 메트로공사 자회사(Mi Bus) • 규모 : 버스 약 1,500대 대상 OSS 시스템(약 1백만 불) • 공사기간 : 2019~2020년
산미겔리또 보안카메라 및 운영센터 구축	• 발주처 : 산미겔리또 시청(Municipio de San Miguelito) • 규모 : IP 카메라 및 S/W(약 1백만 불) • 공사기간 : 2019~2020년

자료 : 파나마 재정경제부(MEF)

현대화를 위한 '전자 정부' 시스템

ㅇ 주재국 시장 및 정부 수요를 판단해 '4대 전자 정부 유망분야'를 선정 정부 관계자 및 발주처 상담주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점진적 진출 도모

– 유망분야별 국내 진출 희망 기관·기업 선별 핀 포인트(Pin Point) 형태 지원필요

4대 전자 정부 유망분야

대표적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농축업 부흥운동' 연계 KSP 사업 추진

ㅇ 신정부는 자국 내 농축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자국산 이용을 장려하는 '신토불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

ㅇ 주요 정책으로는 크게 인프라 투자, 상품의 상업화, 자금 지원 등이 있음
- (인프라 투자) 첨단장비 및 기술 활용을 통한 현대적 생산모델로의 전환
- (상품의 상업화) 농축산매매청(IMA)의 창구 역할로 운영, 첨단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다수의 소규모 농축가의 생산물 가공, 판매 및 수송 지원
- (자금 지원) 농축개발은행, 농축보험청 등을 통한 농가의 지속적인 투자 유도

ㅇ 신규 설치된 농축산업 내각(Gabinete Agropecuario Permanente)과 협력, 지방 중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유휴 장비, 약품기증 및 '찾아가는 기술학교' 개최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등 기초적인 CSR을 넘어 종합적인 KSP 사업 추진 필요
- 농축산업 내각은 향후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육성책인 'Agro2040'를 추진하는 주체로 KSP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 향후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정부입찰 수주를 유도함

1단계	2단계	3단계
기초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정부입찰 수주 지원
농축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첨단 농기계, 약품 기증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교육 및 자문	정부관계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우리기업의 정부입찰 수주 지원

Ⅲ. 진출전략

- ○ 한-중미 FTA 활용 수출 수혜 품목 중심 마케팅 확대를 통한 시장선점
- ○ 콜론자유무역지대 등 물류 거점 활용을 통한 중미·카리브국 연계 진출 확대
- ○ 정부 추진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및 유망 벤더 활용 관련 기자재 수출 확대
- ○ 파-중 FTA 추진 등 경협 가속화 대비 국내기업 차별화 전략 수립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파나마 시장 SWOT 분석>

S 강 점 (Strength)
-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개별인구 소득 증가
- 중남미 항공·물류·금융 거점 역할 수행
- 자유무역 기조에 따른 높은 시장개방도
- 공용화폐 '달러' 채택에 따른 낮은 환위험

W 약 점 (Weakness)
- 소득불평등 지속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 적은 인구(420만)의 협소한 내수시장
- 제조업 기반 미약
- 높은 대외 의존도

O 기 회 (Opportunity)
-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 유지
- 한-중미 FTA 체결에 따른 수출여건개선 및 경쟁국 대비 시장선점 유리

T 위 협 (Threat)
- 파-중 FTA 협상 등 경쟁국 경협 가속화
-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리스크 민감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한-중미 FTA 수혜 품목 중심 마케팅 추진	수출 수혜 품목 중심 적극적 마케팅 추진
ST 전략 (강점 활용)	• 공동물류창고 사업 등 거점 형태 마케팅 추진 • 중미·카리브국 등 인근국 연계 진출 유도	물류거점 활용 인근 미개척 시장 마케팅 확대
WO 전략 (기회 포착)	• 유망 벤더 활용 기 수주된 프로젝트 대상 국내 기업 기자재 납품 기회 확대 • 유력 발주처 협력 강화로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프로젝트 직접 수주 및 건설기자재 수출 확대
WT 전략 (위협 대응)	• 중국 등 저가 제품과 경쟁 시 품질 차별화 전략 활용	중국 등 저가 제품과 차별화 전략 수립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건설기자재	○ 주요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국내기업의 수주 지원 강화
전력기자재	○ 현지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파나마 전력 시장 진출 강화
자동차 부품	○ 적극적인 A/S 정책, 유연한 단가협상 등 타깃 전략 수립
화장품	○ 한류 활용 SNS 인플루언서, 언론사 협력 복합마케팅 확대
의료기기·의약품	○ 新'인기의약품'제도 등 수입 간소화 제도 적극 활용

수출 수혜품목 중심 마케팅 확대	한-중미 FTA, 정부 신규 제도도입 등 수출 수혜 품목 선별을 통한 시장선점 유도

2-1. 건설기자재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프라 프로젝트 가속화 의지 피력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 국내기업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및 유망 벤더를 통한 건설기자재 납품 확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신정부의 공공 인프라 투자 기조 지속으로 건설업이 당분간 파나마의 경제성장을 5~6%대로 견인해나가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대부분의 건설기자재 및 중장비를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수입품목은 철강 및 건설용 중장비 등이 있음

  * 전체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은 1990년대 2%대에 못 미쳤으나,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2011년에는 두 자릿수를 기록, 2019년 1분기 기준 18%를 상회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주요 건설업체와 네트워크가 공고한 유통업체 발굴 및 협력 필요

- 메이저 건설사와의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주요 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시장 동향 및 납품가능성 사전 파악 필요함
- 경쟁국 제품 대비 차별화가 가능한 A/S 분야 등에 주력하여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관련 기술 교육 연계 제공 등 전략적 진출 필요함

○ 중남미 지리적 거점 파나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건설장비 전시회 활용

- 중남미 주요 바이어들이 대거 방문, 상담하는 중미카리브 최대 전시회임을 고려하여 동 전시회 참가하여 유력 거래선 발굴 추진 권장함

건설기자재 관련 전시회

전시회명(1)	파나마 기계 부품/건설장비전시회(Expomaquina)
개최기간	2020년 2월
개최장소	ATLAPA 컨벤션센터
주최기관	ADIMA(기계수입협회)
전시품목	건설장비, 광산기계, 농기계, 물류 등
홈페이지	https://expomaquina.org/

전시회명(2)	파나마 건축박람회(CAPAC Expohabitat)
개최기간	2020년 9월
개최장소	ATLAPA 컨벤션센터
주최기관	CAPAC(파나마건설협회)
전시품목	건축기자재, 건설 중장비, 부동산 및 금융상품 등
홈페이지	https://www.capacexpo.com/

o 건설 분야 관련 주요 유망품목
- (건설 중장비 및 부품) 굴삭기, 화물자동차, 유압브레이커, 운반 하역기기 등
- (건축자재) 아연도강판, H형강, 철근, 산업용호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2-2. 전력기자재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주요 투자 분야 중 하나로 발전·송전·배전 각 분야 프로젝트 추진 활발
○ 현지 유관기관 및 유력업체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진출 도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o 국가 주도 전력 분야 투자 확대로 전력기자재 수요 증가
- 파나마의 발전 수요는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6~2026년 기간 중 추가 발전 수요는 1,000~1,200MW로 매년 100~120MW의 발전소 건설(약 3억불) 필요함
- 제4 송전선 등 신규 송전선 건설 및 송전설비 노후화로 송전 분야 설비 유지보수 수요가 높으며, 특히 변압기의 경우 노후화로 교체수요 높은 상황임
  * 파나마의 현재 발전설비능력은 2,600MW이며, 최대 소비전력 수준은 1,612MW
  * 파나마의 송전 분야 투자 수요는 10년마다 10억불의 투자가 필요 (2016~2050년(35년)간 송전 분야 투자 수요는 30억불 예상)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o 현지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파나마 전력 시장 진출 강화
- 유력 발전사업자 및 장비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파나마 전력 시장 참여
- 현지기업 제휴 및 에이전트 발굴을 통해 시장 진출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진출 유망품목 : 발전기, 변압기, 스위치기어, 철탑, 전선, ESS, 스마트그리드 등

2-3. 자동차 부품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현대, 기아 등 진출 활발로 국산 애프터마켓 규모 상당
○ 다품종 소량오더 대응, 현지 판촉지원, 유연한 단가협상 등 차별화 전략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ㅇ 현대, 기아 등 국산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일본에 이어 2위로 2018년 기준 신차판매량 점유율은 약 35.8%에 달하며, 중고차 시장까지 합산하는 경우 약 40%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

* 2018년 파나마의 신차 판매 대수는 약 5.1만 대로 도요타(1위)에 이어 현대(2위), 기아(3위) 순

ㅇ 자동차 부품 시장은 품질과 가격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품목군으로 이를 고루 갖춘 한국산 비순정품 또한 진출기회가 많으며, 최근 들어 한국산 부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리테일 숍 또한 다수 영업 중

ㅇ 도심 내 높은 주택임차료에 따라 1시간 거리 내 인근 도시 출퇴근이 보편적

– 정부 주도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노선 발달 미약, 정시성 부족 등 현실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자차구매 수요는 꾸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ㅇ 다품종 소량오더 대응, 현지 판촉지원, 유연한 단가협상 등 현지 거래선이 요청하는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구사 필요

– 수출 유망 자동차 부품은 필터, 에어컨 부품, 브레이크파트, 배터리, 엔진실, 스티어링파트, 타이어 등 소모·마모도가 높은 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ㅇ 매년 중남미·카리브 시장을 타깃으로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전시회가 개최되며, 2020년에는 신규 개소한 아마도르 컨벤션 센터에서 두 전시회가 공동 개최될 예정

파나마 자동차 부품 관련 전시회

전시회명(1)	중남미 자동차 부품 전시회(Latin Autoparts Plaza)
개최기간	2019년 7월(동시개최)
개최장소	AMADOR 컨벤션센터
전시품목	OEM, 교체용 자동차 부품, A/S 부품 등
홈페이지	https://www.latinpartsexpo.com/es/inicio/

전시회명(2)	중남미 타이어 전시회(Latin American&Caribbean Tyre Expo)
개최기간	2019년 7월(동시개최)
개최장소	AMADOR 컨벤션센터
전시품목	타이어, 중고타이어, 바퀴, 관련 부품 등
홈페이지	https://www.latintyreexpo.com/es/inicio

2-4. 화장품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류의 지속 확산에 따라 K-Beauty에 대한 관심 확대
○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병행을 통한 제품 홍보 및 초기 시장 선점 주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주재국 주요 TV 채널 및 넷플릭스 등을 통해 한류가 지속 확대되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미국·중국 등을 통한 소량 수입 형태에서 한국 업체와의 직거래 전환희망 바이어 증가추세임

– 최근까지 한국산 화장품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기반 리테일숍을 통해 소매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형 유통망에 입점하는 브랜드가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보건부 등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인근국 코스타리카의 경우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진출한 상황으로, 2011년 코스타리카 최대 쇼핑몰 (Multiplaza) 진출 및 현재 5개 매장 운영 중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조속한 현지 보건부 등록 절차 마무리를 위해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선임 권장

– 현지 특성상 정부 기관 등록 관련 행정절차 진행 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의 대중이 없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단기간에 마치는 것이 주요함

○ 한류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는 시장으로 대부분의 타깃 층은 소비력이 높지 않은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어, 중저가형 제품이 유망

– SNS 마케팅, 한류 연계 판촉행사 등 눈높이에 맞는 마케팅 추진 필요함

2-5.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정부 주도의 의료 인프라 현대화프로젝트 추진 및 '인기의약품'제도 도입 예정
- 현지 정부 기관 등록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진출전략 수립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정부 주도의 의료 인프라 개선 노력이 주를 이루며, 공공의료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암병원, 아동병원 증설 등 관련 분야 입찰이 추진될 전망
  - 은퇴인구 증가, 고소득층 외국인 유입으로 높은 의료 수준에 대한 수요확대 중임
    - * 보건체계 개선, 의료장비 무상 지원, 의료기관 네트워크 현대화, 의약품 대량구매 등 추진
- 사회보장청(CSS)을 통한 무상 의약품 지원제도와 더불어 '인기의약품' 제도 도입을 통해 복제약 공급 확대 및 FDA 등 특정 인증을 보유한 의약품의 수입 간소화 추진 예정
- 기존 미국·유럽 과점적 시장에서 최근 한국·일본 등 아시아산의 품질 우수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시장 진출 가능성 긍정적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 등록 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 및 강화된 인증 절차에 대한 대비 필요
  -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진출 소요 기간 단축 및 각종 법적 절차 등 부담 경감됨
  - 양국 해당 부처협업으로 현지 우대 의료기기·의약품 수입 관련 우호 국가 리스트 등재를 통해 시장 진출 비효율성 극복 필요함
- 아직은 약한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 극복을 위해 대(對) 정부기관 및 정부조달 주요 업체와의 접촉을 통해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 홍보 확대 필요
  - 가성이 높은 국산 품질경쟁력 적극 홍보 필요함

3 한-파나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건설/플랜트	ㅇ 현지 유수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 ㅇ 수주 프로젝트, 현지 EPC 업체 발굴 및 건설기자재 수출
전자 정부	ㅇ 4대 진출 유망분야 등 국내 선진시스템의 현지 수요 발굴
농축산업	ㅇ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한 점진적 시장 진출
신재생에너지	ㅇ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정책 관련 수요 발굴

3-1. 현지 유수 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ㅇ 국내기업의 건설/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현지 유수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확대
- ㅇ 프로젝트 수주 EPC 업체 발굴을 통한 국내 건설기자재 수출 확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현재 파나마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
- 최대 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된 유동성으로 공공 사업자 부채 상환에 착수와 더불어 기 수주 프로젝트 우선순위별 추진 및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발주 진행 예정
  - 공공보건, 치안 등 중소규모 입찰부터 도로, 항만, 발전소 건설 등 공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발주는 지속할 전망임
    * (SOC) 항만, 교량,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개발 수요 지속
    * (공공보건) 아동병원, 암 병원 등 병원 신축 및 낙후된 병원 시스템 개보수 수요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파나마는 중남미 내 건설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국가 중 하나로, 과거에는 스페인, 브라질계 기업의 수주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한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가능한 분야로 대기업 수주 지원과 함께 연관 중소업체 협력분야 매칭 등 파급효과 확산 가능함
- 현지 유수 기업과의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 확대
  - 아직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등 유사 문화권 내 기업이 주요 입찰에 선정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현지 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함
- 한-중미 FTA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통한 주요 프로젝트 접근성 강화
  - 한-중미 FTA 내 합의된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라 전통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비 국내기업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한 발판을 마련함

3-2.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정부 알림서비스 등 전자 정부 수요 발굴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4대 유망 진출 분야 등 국내 선진시스템의 현지 수요 발굴 지속
- 시스템 부재에 따른 느린 행정처리가 보편화, 선제적인 대(對)정부부처 제안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콜론자유무역지대 내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수단계의 물류, 통관 수속을 통합하는 디지털 단일 통관시스템(Ventanilla Única de Trámites) 구축 사업이 2019년 2월 승인되어 곧 추진 예정

- 파나마의 제2 보세구역인 파나마 파시피코의 경우 이미 유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6단계의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해 이용자 편의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임

ㅇ 소비자보호원(ACODECO)의 전자 청구서 시스템 도입으로 주재국 내 이뤄지는 모든 소비활동 전자화할 계획

- 개별 소비자는 소비행위에 대한 증빙으로 실물 청구서 대신 인터넷상으로 간편히 청구서 인쇄 가능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ㅇ 전자 정부 4대 유망분야로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온라인통합결제시스템, 정부 알림서비스, 물류/통관 통합시스템 등을 무역관 자체적으로 선정해 주재국 수요를 발굴할 예정

ㅇ 시스템 부재에 따른 느린 행정이 고착화되어 있으나, 데이터의 전자화·통합화에 대한 개별 정부 부처의 관심이 높아 선제적인 제안 노력이 필요

3-3. 신정부 주요 보호 산업 '농축산업' 대상, KSP 사업 연계 점진적 진출 도모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신정부의 주요 보호 산업 중 하나인 '농축산업' 대상 KSP 사업 연계를 통한 점진적 진출

ㅇ 장비 기증, 기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우호적 이미지 구축

주요 이슈 및 트렌드

ㅇ 新정부는 '신토불이 캠페인' 의 일환으로, 자국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 중이며, 인프라 투자, 상품의 상업화 지원, 자금 지원 등이 주요 정책

- (인프라 투자) 첨단장비 및 기술 활용을 통한 현대적 생산모델로의 전환함
- (상품의 상업화) 농축산매매청(IMA)의 창구 역할로 운영, 첨단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다수의 소규모 농축가의 생산물 가공, 판매 및 수송 지원함
- (자금지원) 농축개발은행, 농축보험청 등을 통한 농가의 지속적인 투자 유도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ㅇ 新정부의 주요 보호 산업 중 하나로 단일기업의 개별 수출 등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CSR 사업 및 경제 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주재국 정부 및 시장관계자로부터 우호적인 이미지 구축

- CSR 사업을 활용한 장비 기증, 기술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통해 관련 산업 내 우리기업의 우호적 이미지를 구축, 상기 과정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및 중소규모 입찰 수주 확대 유도함

3-4.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따른 관련 수요 발굴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주재국 정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을 발표, 205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70%까지 확대 예정
- ○ 현재 수력발전 중심에서 탈피해 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정책 다수 도입

주요 이슈 및 트렌드

ㅇ 파나마 중장기 국가 에너지정책(Plan Energetico Nacional 2015-2050) 발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예정

-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70% 유지하되, 수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원의 비율을 높일 계획임
- 주재국의 전력 생산 비중은 수력이 약 70.2%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저수량 관리 애로, 강수량 변동 등 리스크가 존재해 에너지원 다변화가 절실함

  * 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2018년) : 수력에 이어 풍력(5.3%), 태양광(2.1%) 순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ㅇ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수력을 제외한 주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요 많이 증가할 전망

- (풍력) 2050년까지 풍력 발전 설비를 3,760MW까지 증설해 전체 에너지원 중 풍력 발전 비중을 23.5%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풍력타워, 기어박스, 블레이드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태양광) 2019년 2월 개소된 태양광 발전소 Parque IKAKOS의 정상 운영으로 향후 전력 생산 비중이 확대될 예정임

  * 단기적으로는 총 22건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484.2MW)을 통해 자가발전용 태양광 패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의무불이행	일방적인 구매계약 취소
■ 파나마(콜론) P사 잠적 - 파나마 내 보세구역인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P사는 국내 중소기업 R 사를 통해 총 2차례, 약 20만 불 오더 후 잠적 ■ **(대응전략)** ☞ 신규 바이어 거래 시, 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영업 여부 확인, 무역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마련	■ 파나마 K 사 총판 계약 협상 중 돌연 해지통보 - K 사는 국내 A 사의 제품의 기술력에 반해 총판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제품은 빠른 시일 내 납품받길 희망했으나 계약서 검토 등 회신은 상당히 느린 업무 대응을 보이며 협상 기간이 장기화 되었으며, 협상 시 양측 모두 소통 시 언어장벽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됨 ■ **(대응전략)** ☞ 현지어 등 언어장벽이 존재하는 경우 무역관의 도움을 받아 컨퍼런스 콜 등을 진행할 것을 권장 ☞ 바이어들의 변덕이 다소 심한 편으로 계약서 서명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는 필히 진행한 후 납품을 진행할 것

경제제재 리스크	수입자 재무제표 이슈
■ 베네수엘라, 미국발 경제제재 -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수출건의 경우, 수입자 및 엔드유저까지 OFAC SDN 명단과의 관련성이 없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제출 등 확인 절차가 다대하여 사실상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함 - 현지 정부와 거래 이력 등 관련이 있는 바이어의 경우 외화 송금 시 갑작스레 계좌가 동결되는 등 상기제재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 다대함 ■ **(대응전략)** ☞ OFAC SDN 명단 확인 및 수입자의 최종 유통경로 확인 필요 ☞ 거래 시 선 결제 요구	■ 없음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9018, 9019 9020, 9021	수입관세율(%)	8%
의료기기	수입액('18/US$백만)	101	대한수입액('18/US$백만)	1.7
	선정사유	- 한-중미 FTA 발효 시 3년 이내 단계적 철폐 품목 - 한국산 기기의 우수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실제 진출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		
	시장동향	- 정부가 사회보장청(CSS)를 통해 지속 수입해오고 있으며, 도심 및 외곽지역 간 공공의료 시설 격차가 커 중장기적으로도 수요가 확대될 예정		
	경쟁동향	- 전통적으로 미국, 독일 등의 글로벌 브랜드가 주도해온 시장이나, 중국, 멕시코 등에서도 수입규모가 상당한 편		
	진출방안	-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가격이 높아도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해서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품질을 갖춘 적정가격대 제품으로 포지셔닝 필요		
품목명 2	HS Code	8507.10	수입관세율(%)	15%
자동차 부품 (배터리, 타이어, 기타 부품)	수입액('18/US$백만)	20.3	대한수입액('18/US$백만)	7.1
	HS Code	4011	수입관세율(%)	10%
	수입액('18/US$백만)	77.8	대한수입액('18/US$백만)	4.3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5%
	수입액('18/US$백만)	92.1	대한수입액('18/US$백만)	8.8
	선정사유	- 자동차부품 전반에서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배터리의 경우 4년 연속 수입 규모 1위를 차지		
	시장동향	- (자동차부품 일반) 최근 10년간 연평균 7.8%의 높은 성장 및 중산층의 내구성 소비재 구매력이 높은 시장으로 최근 연간 약 5~6만 대 신차 판매, 파나마의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31%에 달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 높음		
	경쟁동향	- 파나마의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 최대 수입대상국은 중국(21.6%), 중계 무역지대인 콜론자유무역지대(11.0%)를 제외하면, 미국(16.2%), 한국(11.0%), 일본(8.1%), 멕시코(6.3%) 등이 뒤를 이음(2017년 3분기)		
	진출방안	- 북미-중남미, 태평양-대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파나마의 이점을 살려 물류거점으로 활용 - 제품의 납품기한 단축, 인근국 소량 오더 흡수 등 주변국 연계 진출을 위한 다양한 파생전략도 모색		
품목명 3	HS Code	3303, 3304, 3307.90	수입관세율(%)	5~6.5%
화장품	수입액('18/US$백만)	66.9	대한수입액('18/US$백만)	0.15
	선정사유	- 중미 내 1인당 GDP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중산층 확대 및 생활 수준 개선으로 미용·뷰티제품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중		
	시장동향	- 전통적으로 미국·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나, 최근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시장 진출용이		

	경쟁동향	- 소득격차로 인해 중저가 및 고가 양분화 현상이 뚜렷하며, 공통적으로 미국 및 유럽산 수입의존도가 높음		
	진출방안	-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초기 단계로 타깃 층이 소비력이 다소 약한 젊은 층으로 중저가의 가격대와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 모색		
품목명 4	HS Code	7308	수입관세율(%)	5~15%
철강제품	수입액('18/US$백만)	165.3	대한수입액('18/US$백만)	23.0
	선정사유	-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관세 즉시 철폐 내지 10년 이내 단계적 철폐 품목 - 2018년 기준 중국에 이어 수입규모 2위를 차지함		
	시장동향	- 파나마 내 공공인프라 투자 정책에 따른 각종 건설 붐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 지속		
	경쟁동향	- 한국 외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등임		
	진출방안	-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한 만큼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 및 맞춤형 제품 공급 방안 강구 필요		
품목명 5	HS Code	8429,8430,8431	수입관세율(%)	0~5%
건설 중장비	수입액('18/US$백만)	165.3	대한수입액('18/US$백만)	13.9
	선정사유	- 파나마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으로 건설 시장 호황 지속 및 건설 중장비 수요 확대		
	시장동향	- 유망 건설 중장비로는 굴삭기, 화물자동차, 유압브레이커, 산업용호스, 건설 중장비 부품, 운반하역기기부품, 크레인 등이 있음		
	경쟁동향	- 주요 수입국은 미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임		
	진출방안	- 주요 건설업체들과 네트워크가 강한 유통업체 발굴		

자료 : SICEX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건설·플랜트	선정사유	- 정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 확대를 통한 물류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건설경기 호조세 지속
	시장동향	- 제4 교량, 지하철 3호선, 제4 송전선, 전력 등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쟁동향	- 현재까지 파나마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주로 스페인, 브라질 기업이 주도 - 최근 기존 브라질계 메이저 건설사 부패혐의 등에 따라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 건설기업 파나마 시장 진출 확대 추진 중
	진출방안	- 스페인, 이탈리아, 파나마 등 현지진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방안 효과적 - 파나마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인맥구축을 통한 입찰 정보 입수 및 입찰 대응 필요
품목명 2		
물류·유통	선정사유	- 확장 운하 개통, 물류 산업 종합육성책 ELNP2030 발표 등 국제수준 물류거점 포지셔닝을 위한 정부 투자 기대
	시장동향	- 콜론자유무역지대 등 보세구역 내 물류창고 활용 중남미 인근국 대상 스톡세일 추진 - 중국기업들은 중국-파나마 수교(2017년 6월)를 계기로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중남미 수출 확대 추진 중
	경쟁동향	- 콜론자유무역지대 주요 수입대상 국가 : 중국, 싱가포르, 미국, 홍콩, 멕시코, 베트남, 프랑스 등
	진출방안	- 중남미 주요 거래선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콜론자유무역지대 물류창고를 통한 중남미 주요 국가에 대한 스톡세일 추진
품목명 3		
의료	선정사유	- 병원도시, 어린이병원, 암병원 등 다수의 국가 단위 의료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로 의료장비 수요 확대 - 경제성장, 구매력 증가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확대
	시장동향	- 유망품목 : 방사선기기, 초음파기기, 치과용 엑스레이기기, 진단시약, 주사기 등 - MRI, CT 등 고가장비 : GE Healthcare, SIEMENS, Philips, Shimadzu 등 시장 주도
	경쟁동향	- 주요 수입국은 미국, 독일, 중국, 콜롬비아, 네덜란드, 한국 등임
	진출방안	- 중국산과 가격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가격대비 높은 품질로 시장 진입 가능성 큼 - 공공입찰 비중이 높은 만큼 낙찰 경험이 풍부하고, 네트워크가 강한 전문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필요
품목명 4		
통신·콘텐츠	선정사유	- 한-중미 FTA 추진에 따라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는 서비스 부문의 주요 산업 분야(엔터테인먼트·연예 분야) - 중미 지역 확산 중인 한류콘텐츠 관련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지재권 보호에 대한 규범 마련 예정
	시장동향	- 문화적으로 미국 및 히스패닉 계열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
	경쟁동향	- 전통적으로 미국 문화의 영향이 깊은 시장으로 미국·스페인·타 중남미 국가 계열 콘텐츠가 다수 구성
	진출방안	- 한류 활용 콘텐츠 협력 제작 및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분야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2020년 파나마 종합박람회 한국관 운영

o 중미 최대 종합박람회 국가관 참가를 통해 중남미 유망바이어 매칭 지원

- 1983년 이래 36년째 개최되는 중남미 내 주요 전시회 중 하나로 인근국 유력바이어가 다수 집결 예정, 2020년에는 37년째 한국관 참가
-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우대지원 서비스 등 유관기관 협업, La Prensa, Capital financiero 등 현지 유력 언론 협업을 통한 심층 마케팅 지원

(관할국) 한-중미 FTA 활용 미개척 유망시장 수출상담회 개최

o 한-중미 FTA 체결국 중 미개척 유망시장 대상 유망바이어 발굴 지원

-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 진출 지원이 미진하고, FTA 효과가 높은 미개척 유망시장 대상 전담 직원 상담대행 형태 수출상담회 개최
- 주재공관 및 현지 TPO 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관할국) 카리브해 도서 국가, 미개척 유망시장 수출상담회 개최

o 카리브해 도서 국가 중 시장구조, 소비력 등을 고려, 유망시장 선별 수출상담회 개최

- 트리니다드 토바고, 퀴라소 등 우리 중소기업의 자력 진출이 애로하나, 개별 소비력이 높은 시장을 선별하여 전담직원 상담대행 형태 수출상담회 개최
- 주재공관 및 현지 TPO 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파나마 대형 유통체인 협업 화장품 및 소비재 쇼케이스 개최

o 한-중미 FTA 유망품목 화장품·소비재 대상 현지 유력 유통망 입점 추진

- 대형 유통체인 협업 한국산 화장품 및 뷰티 소비재(화장품·화장도구, 미용기기 및 관련 소비재 등) 쇼케이스 개최
- 유력 TV 방송사, 유명 잡지사, SNS 인플루언서 및 한류 팬클럽 협력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14회 중미카리브(LAC)-중국 비즈니스 서밋	2020.11월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파나마 인구·주택총조사(Censo 2020)	2020.5.24(금)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0 파나마 기계박람회(Expomaquina)	2020.2.5(수) ~ 7(금)	
2020 파나마 유아용품 전시회(EXPO del Bebe)	2020.2.14(금) ~ 16(일)	
2020 파나마 종합박람회(Expocomer)	2020.3.25(수) ~ 28(토)	
2020 중남미 자동차부품/타이어 전시회(Latin Autoparts Plaza)	2020.7월	
2020 파나마 건축박람회(CAPAC)	2020.9월	
2020 파나마 물류박람회(Expologistica)	2020.10월	
2020 파나마 의료박람회(Expomedica)	2020.10월	

부록 對파나마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Ⅰ. 한-파나마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파나마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파나마의 잠재력

ㅇ **중남미 항공교통·금융의 허브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형태 진출용이**

* SEM 라이센스 등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지원책 多

ㅇ **파나마 운하, 콜론자유무역지대 등 절대적 해운·물류이점 보유**

* 해운·물류이점 활용 중남미 인근국 연계 진출용이 → 물류 창고 활용 소형오더 응대

\- 2018년 국제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 중남미 2위, 세계 38위 기록

ㅇ **외국인 직접투자,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중 1위**

* 2018년 FDI 규모는 약 55억, 과거 6년 새 55.5% 성장해 중미 전체 유치액의 40% 초과

ㅇ **과거 10년간 평균 6%대 실질 경제성장률 기록 → 중산층 지속 확대**

* 2011년 착수 대형 구리광산 완공 및 수출개시, 경제 신 성장 동력으로 작용

주요국의 대(對)파나마 경제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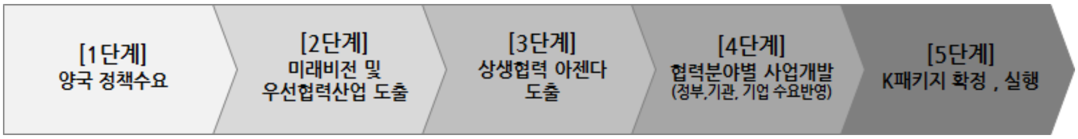
ㅇ **파나마는 활발한 상품·금융 시장의 개방을 추구, 북·중남미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에 더해 최근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와의 접점 확대 中**

주요국의 대(對)파나마 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미국	• 대(對)파나마 FDI 1위 국가(전체 FDI의 39.2%, 2018년 기준) • 파나마의 대(對)콜롬비아 독립(1903년) 지원, 운하 조차권 이양에 따른 미군 주둔 등 전통적으로 대미(對美)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 * 'Hay-Bunau-Varilla' 조약을 통해 미국 주도 파나마 운하 건설 추진 • 파-미, 마약, 국제범죄, 자금 세탁, 불법 이민 등 역내 주요 의제에서 동반자 역할 수행
중국	• 파-중 수교 체결(2017년 10월) 및 25개 이상의 국가 간 협정 체결 * 경제, 무역, 관광, 인프라 프로젝트, 외교 전반에 걸친 협정 • 파-중 FTA 협상 개시 이후 제5차 협상까지 완료 * 전 바렐라(Valera) 정부가 수행한 협상, 신정부의 추진 의지는 아직 불투명 • 제13회 비즈니스 서밋(China LAC)개최 예정(2019년) • 중국발 '파나마시티-다비드 간 철도 프로젝트' 제안 등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
일본	• 대(對)파나마 ODA 공여 주요 국가(차관, 기술·무상자금협력 등 모든 면에서 활발) * 파나마 전체 ODA 수원규모의 67.6% 기록(2011년), 매년 미국과 1~2위 경쟁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Metro 2호선 약 26억 불 수준 대규모 차관 지원

나. 한-파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한-파 양국 모두가 만족하는 쌍방향(Two-way)협력체계 구축 필요



* 각국이 보유한 강점과 상대국의 니즈가 맞물리는 만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체 경협규모 확대 추진

파나마는 전통적으로 외교·경제 전반에 걸쳐 대미(對美) 의존도가 높은 국가지만, 최근 중국과의 수교, 한국과의 FTA 등 외교 다변화 노력 경주

* 전 바렐라(Valera) 정권은 친중 행보를 보였으나, 신정부는 대중(對中) 외교에 다소 소극적

파나마의 협력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건설/플랜트	신재생에너지	◈ **대규모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지하철, 교량, 병원 등 분야 ◈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정책** - 풍력, 태양광 등 수력 대체 에너지원 발굴 ◈ **전자 정부 도입 등 ICT 기술 수요 지속** - ICT, 핀테크(금융) 등 ◈ **한-중미 FTA 활용 상호 교역 확대** - 교역 다변화 및 주요 품목 수출확대
보건의료	ICT	
농축산	기계·장비	
물류·유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파나마의 권역별 협력수요

권역	내용
중미	• 중미협력체제(SICA) 회원국 간 경제협력 강화 • 역내 마약·국제범죄·불법이민 등 국가 간 협력 확대
북미	• 대미(對美) 관계 회복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색 국가 탈피 필요
남미	•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 • 콜롬비아발 관세 인상조치 등 무역 분쟁 협의
유럽	• 프랑스 중심 EU 블랙리스트(조세회피 의혹) 등재 방지협의
아시아 /태평양	• 아시아 주요 3개국인 중국, 일본,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 (한) FTA 체결완료, (중) FTA 제5차 협상완료, (일) ODA 주요국

Ⅱ.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FTA 기점, 산업별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 구축

한-중미 FTA 발효 기점, 농축산업·전자 정부·의약품 등 니즈에 맞춘 경협 강화

1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한 제도적 경협기반 구축

ㅇ **(정책 수요) 양국 간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 고려, FTA 활용 극대화 추진**

* 제7차 협상을 통해 한-중미 FTA 체결, (한)비준 완료 – (파)비준 논의 中

ㅇ **(기업 수요) 한국, 자동차부품·건설 중장비·철강·전력기자재·타이어 등** 파나마, 커피·어류·열대과일·럼 등 주력 품목 교역 확대 희망

– 현지기업인 인터뷰 결과, 가격·품질을 겸비한 한국제품에 우호적 But, 일부 대기업 외 현지 진출 노력 부재로 접촉 기회 少

양국 간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분석

ㅇ 양국 모두 상대국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자국 내 생산량이 적어 대다수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중미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절감효과를 활용해 수입량 확대 혹은 현재 수입 중인 거래선 변경을 고려하도록 유인 가능

(한)주요 수출품목	(파)시장 동향
자동차	전량 수입
핸드폰	전량 수입
건설 중장비	주요 품목 수입산 의존
타이어	자체생산량 미미

(파)주요 수출품목	(한)시장 동향
열대과일	전량 수입
고철스크랩	주로 수입산 의존
커피	전량 수입
목재	자체생산량 미미

ㅇ **(향후 제안)** 양국 관련부처 협력, 상호수출확대를 위한 쌍방향 지원 확대

– 각국 주요 전시회 내 국가관 유치 및 참가 인센티브 지원

– Korea-LAC 비즈니스 서밋 등 다각도 경협 행사 개최 확대

2 KSP/ODA 활용 주요 보호 산업 '농축산업' 중심 포괄적 경제협력

ㅇ **(정책 수요)** 파나마 정부, 자국 농축산업의 지속된 생산성 저하 우려, **'생산기법 현대화, 제품 상업화'** 등 선진국과 기술 협력 희망

– 농축산업 신규 내각 구성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생산) 노동집약적 생산방식 → 첨단장비 및 시스템 활용, 전문인력 양성

· (상업화) 개별 농가 유통·판매구조 → 농축산매매청 설치 및 창구 역할 수행

* 물류시스템 도입, 소규모 농축가의 생산물을 모아 가공, 판매, 수송까지 지원

· (자금) 농축개발은행, 농축보험청 등을 통한 농축가의 지속적 투자 유도

○ **(한국 역량) 한국형 농촌경제발전 경험노하우 보유 → 전문 인력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기업 연계 첨단장비 및 기술 지원 등 포괄적 협력**

– 농촌진흥청,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 구성, '소농 빈곤 해결'을 위해 중남미 11개국과 공동연구 수행 중

– 한국은 ODA 공여국, 파나마는 ODA 수원국으로 국제협력제도 활용 가능

대(對)파나마 KSP 현황

연도	사업명	세부내용
2011년	파나마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과 한국의 경험	• 파나마 농식품의 아시안 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 한국의 식물검역정책 및 수출 물류 시스템 공유
2012년	파나마의 공공 투자계획과 분야별 발전전략의 연계, 정부 업무 중복성 제거를 위한 분야별 코디네이션	• 정부부처별 계획 수립현황 기반 업무 중복성 분석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제언 • 파나마 국가계획의 한계 분석 및 정책 제언 •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한국의 성과관리 및 정책 조율 수단 공유

자료 : www.ksp.go.kr

대(對)파나마 ODA 현황

연도	사업명	세부내용
2019년	의료-보건 현대화사업	• 의료. 보건시설의 개선을 통한 의료. 보건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국민보건. 생활 수준/향상 도모
2019년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 운영	• 한- 중남미 농업기술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남미의 빈곤,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기초, 기반 향상 모델 연구 및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연구역량 강화

자료 : www.odakorea.go.kr

○ **(향후 제안)** 그간 한국의 주요 KSP/ODA 의제이자, 파나마 신정부 선정 **자국 주요 보호 산업인 '농축산업' 중심으로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

3 전자 정부 4대 유망분야 활용 기술 협력

○ **(정책 수요)** 국가 행정의 투명성·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좋은 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 중장기 **'Digital Panama 4.0' 정책** 추진

– 디지털혁신청(AIG) 중심 국가 행정의 디지털화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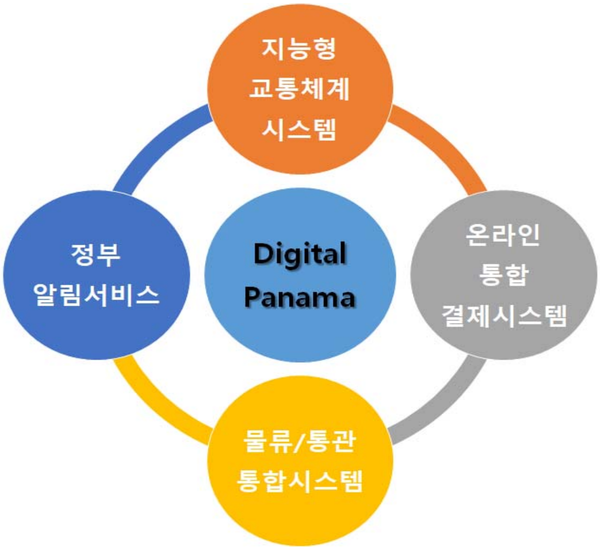
* 주요 추진성과 : 온라인 민원서비스(증명서 발급 등), 전자여권, 대국민 민원 콜 센터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추진기관	프로젝트명	내용
AIG SINAPROC, MIAMBIENTE	대국민 재난 알림서비스	• 급격한 날씨 변화,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국민 알림서비스 발송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AIG 은행 연합 (TAT or DGI)	국민 선불카드 도입 (온라인뱅킹 연계)	• 국민 선불카드 도입 및 공과금 납부시스템 연계를 통한 국민 생활 편의 향상 • 저 신용자의 경제활동 파악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및 추가 세수 확보
AIG CSS MINSA	E-건강	• 주재국 소재 병원, 클리닉 통합 환자 진단기록 온오프라인 연동 시스템 • 전화, 온라인 진찰시스템 도입을 통한 도심-지방 간 의료 인프라 격차 완화
AIG	통합물류시스템	• 기존 통합물류시스템 기능 및 연계 강화

○ **(향후 제안)** 전자 정부 4대 유망분야 활용 국내 진출희망 기관·기업 선별 핀포인트 형태 지원 → 주재국 정부 인사 방한 초청 및 연수

전자 정부 4대 유망분야



4 의약품 인증절차 간소화 협력

○ **(정책수요)** 新정부, '지방 소도시·빈곤층' 중심 의약품 만성부족 문제 해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의약품 공급 확대정책 추진

– 파나마 보건부, 2017년 5월 부 'High Standard Quality Control' 국가 대상 의약품 수입 시 등록 절차 간소화 → 기존 1~2년 소요에서 약 3개월로 단축

* 미국 FDA, 유럽 EMA 등 국제 인증 보유 의약품 대상 수입 절차 간소화 제도 운영 中

– 복제의약품(Generic) 공급확대로 국민건강향상 도모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High Stanard Quality Control 국가리스트

국가명	인증기관
미국	Administracion de Alimentos y Medicamentos de los Estados Unidos(FDA)
캐나다	Health Authority
일본	Ministrio de Salud, Trabajo y Bienestar(MHLW) Agencia de Productos Farmaceuticos y de Dispositivos Medicos(PMDA)
호주	Administracion de Productos Terapeuticos(TGA)
유럽	Agencia Europea de Medicamentos(EMA)
스위스	Agencia Suiza para Productos Terapeuticos(Swissmedic)
스웨덴	Agencia de Productos Medicos(MPA)
아이슬란드	Agencia de Medicamentos de Islandia(IMA)
노르웨이	Agencia de Medicamentos de Noruega(NOMA)
스페인	Agencia Espanola de Medicamentos y Productos Sanitarios(AEMPS)
영국	Agencia Regulatoria para Medicamentos y Productos Sanitarios(MHRA)
핀란드	Agencia Finlandesa de Medicamentos(FIMEA)
프랑스	Agencia Nacional Francesa de Seguridad de los Medicamentos y Productos de Salud(ANSM)
벨기에	Agencia Federal de Medicamentos y Productos para la Salud(AFMPS)
오스트리아	Agencia Austriaca para la Salud y la Seguridad Alimentaria(AGES)
독일	Ministrio Federal de Salud(BMG), Autoridad Central de los Lander para la Proteccion de la Salud relativa a los productos medicinales y dispositivos medicos(ZLG)
덴마크	Agencia Danesa de Medicamentos(DKMA)
뉴질랜드	Autoridad de Seguridad de Medicamentos y Dispositivos Medicos(Medsafe)
네덜란드	Inspeccion de Asistencia Sanitaria(IGZ)
아일랜드	Autoridad Reguladora de los productos de Salud(HPRA)
이탈리아	Agencia de Medicamentos italiana(AIFA)

ㅇ **(한국 역량)** 2019년 5월, 의약품 관련 **EU 화이트 리스트 세계 7번째**로 등재

* EU 화이트 리스트 등재 국가 :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한국

ㅇ **(향후 제안)** 한-파 중앙부처 간 협력을 통한 의약품 인증 간소화 적용

– 한국, 2014년 세계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42번째 가입국으로 등록, 가입국 간 상호 협정에 의거 의약품 등록 절차 일부 면제 中 → 양국 간 의약품 간소화 혜택 적용을 위한 협의 필요

부록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1 유통·물류업

○ **(정책 수요)** 민관합동 TF, 물류업 중장기 종합육성책(ELNP 2030) 발표, 주요 골자는 기존 동-서 일방향 물류흐름을 다방향으로 변화 추진

– 서부 상업 도시 제2의 물류 도시 육성, 대(對)북중미 육상물류거점 육성

ELNP 2030 지향 미래 물류흐름

○ **(시장 수요)** 중남미를 넘어 세계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책 多, 해상 물류의 육로를 통한 인근국 유통 확대 → 진정한 물류거점으로 발돋움

– But, 해상 물류 대비 **'육로 운송 및 자국 내 유통시스템 발달'**은 미비

○ **(현지 역량)** 파나마 운하, 태평양·대서양 소재 보세구역,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육로, 디지털 통관 시스템 등 **'우호적 유통·물류 인프라'** 보유

– LG 판토스, 삼성 SDI 등 국내 유수 물류 기업 또한 법인 형태 진출

* IMF 국제물류성과지수 : 세계 38위, 중남미 2위

○ **(한국 역량)** 양질의 서비스, 가격 경쟁력 구축 글로벌 물류사 다수, '당일 출고 보장, 로켓배송, 새벽 배송' 등 **선진화된 유통시스템** 보유

○ **(협력 전략)** 현지 물류·유통사와 파트너십 및 기술교류를 통한 유통시스템 구축 및 육상물류 활성화 → 중장기 주요 국가정책 달성 기여

2 건설·전력기자재

○ **(정책 수요) 국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경제성장** 기조 지속

– 신정부, 취임 직후 최대 규모 국채 발행 성공 →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확대

· '2019~2024 공공투자 계획' 추진 가속화, 기 수행 프로젝트 공공부채 상환

ㅇ **(시장 수요)** 과거 스페인, 브라질계 기업 위주 프로젝트 수주 관행 다변화 → 파나마 운하청(ACP), 전력공사(Etesa), 광물공사(Minera Panama) 등 주재국 **주요 발주처 추진 프로젝트의 한국기업 수주 확대**

* 프로젝트 직접 수주 외, 현지 1·2차 벤더사의 한국산 건설·전력기자재 수요 多

한국기업 프로젝트 수주 현황

프로젝트	내용
Miraflores 디젤발전소 건설	• 발주처 : 파나마 운하청(ACP) • 수주기업 : 현대중공업 • 규모 : 70MW(1.4억 불) • 참고사항 : 2013년 완공
운하 확장공사 수문 및 구동장치 설비 공급	• 발주처 : GUPC(Grupo Unidos por El Canal) • 수주기업 : 현대삼호중공업 • 규모 : 1.9억 불 • 참고사항 : 2016년 4월 완공
파코(Panama-Cobre PACO) 석탄화력발전소	• 발주처 : MPSA(Minera Panama S.A) • 수주기업 : SK건설 • 규모 : 300MW(약 6억 불) • 참고사항 : 2017년 완공 예정(파코 구리광산에 전량공급)
싼타리타(Santa Rita) 디젤발전소 건설 사업	• 발주처 : Jinro.Co. Ltd(Etesa로부터 수주, 원청기업) • 수주기업 : 한일엔브이 • 규모 : 58MW(약 5천만 불) • 컨소시엄 : 한일엔브이와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 구성 • 공사기간 : 2015년 6월~2016년 2월
AES 천연가스 발전소 및 LNG 터미널 건설	• 발주처 : AES(Etesa로부터 수주, 원청기업) • 수주기업 : 포스코건설 • 규모 : 381MW(약 6.5억 불) • 공사기간 : 2016년 4월~2018년 8월(준공식 2018년 8월 17일)

ㅇ **(협력 전략)** 프로젝트 직접 수주 확대 및 중소기업의 기자재 수출 지원

– 현지 유수 수주업체와 **공동 컨소시엄 구성** →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제고

* 주재국 프로젝트 시장은 **'과거 수주경험·현지 네트워킹' 등이 주요 요소**로 작용

– 국내 공공 발전사 – 등록 벤더 협업, 무역사절단 등 현지 마케팅 확대를 통한 발주처, 1~2차 벤더사와의 교류 확대

3 자동차부품·중고차

ㅇ **(시장 수요)** 현대·기아 등 국산 차 브랜드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 승용차, 상용차 등 중고차 거래 또한 활발해 애프터마켓 발달

– 품질·가격 경쟁력을 겸비한 국내 'OES부품, 애프터마켓 부품' 수요 존재
  * 도요타(1위)에 이어 현대(2위), 기아(3위) 순, 신차·중고차 합산 시장점유율은 약 35%대 추정

○ **(기대 수요)** 중미·카리브 등 인근국 내 자동차 시장구조 또한 유사 → 동일 문화·언어권, 콜론자유무역지대 물류이점 활용 연계 진출 기대
  * 코스타리카 : 현대(2위), 기아(7위)/트리니다드토바고 : 현대(2위), 기아(5위)

○ **(현지 역량)** 북부 카리브해 소재, 대규모 보세구역 콜론자유무역지대 보유
– 관세 면제, 통관용이, 저렴한 물류창고지대(Coco Solito) 등 강점

○ **(한국 역량)** 국내 제조사의 필터류, 서스펜션·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 OES 형태 수출 확대, 양질의 애프터마켓 부품 제조사 증가
– '국산/외제차 포괄 다수 부품'을 조달하는 자동차부품 전문상사 또한 존재
  * 중미·카리브 바이어 특성상, 소량 다품종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오더가 많은 편

○ **(협력 전략)** 국내업체 협업, 중미·카리브 대상 **부품 수입 및 공급부터 A/S까지 가능한 현지 '통합 서비스센터' 구축**
– 보세구역 물류창고 활용 우리기업의 '국산 자동차부품 공동물류센터' 구축
  * 무역관 해외물류네트워크 서비스 연계 추진
– 주요 부품 및 중고차 A/S를 위한 서비스센터 개소 지원
  * 중고차(버스 등) 수출 시 '부품조달 애로, 현지 A/S 불가' 등 애로사항 다대

4 의료기기·바이오시밀러

○ **(정책 수요)** 공공 부문, **기초 인프라부터 S/W·기술까지 포괄적 수요** 존재
– 정부 주도, **공공의료부문 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 활발**
  · **공공의료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암병원, 아동병원 등 입찰 추진
  · **'인기의약품' 제도** 도입을 통한 의약품 부족 문제 해결
  · 디지털의료(Salud Digital) 사업 추진,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도입
    * 디지털진료정보기록소(HCUD), 약품구매 어플(Medic App) 등 개발

○ **(시장 수요)** 민간 부문, '은퇴인구 증가, 고소득층 외국인 유입 확대' → 사립 병원 중심, 첨단장비·시스템, 높은 수준의 의료진 등 수요 지속
– 의료기기 시장은 고가의 독일, 미국 등 글로벌 브랜드의 과점 형태 장악
– 의약품의 경우 고가의 오리지널 약품 위주, 잠재적 바이오시밀러 수요 多

○ **(한국 역량)** 한국,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 품질·가격 경쟁력 겸비
– 정부 R&D 자금 활용, **AI·빅데이터 기반 S/W, 의료기기 개발** 활발
–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역량** 보유

· **EU 의약품 화이트리스트** 전 세계 7번째 등재, 세계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한-스위스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

* GMP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 **(협력 전략)** 해외진출 기반 확보 및 인력교류를 통한 포괄적 협력 확대

–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 국내 의료기기·의약품 현지 등록 절차 간소화 추진

– Medical Korea·의료해외진출프로젝트 등 국내 의료 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 보건의료 해외진출인턴십·외국의료인력연수 등 상호 인력교류사업 확대

* 양국 보건복지부 공동개최, 파나마 의료진 대상 한의약 진료세미나 개최 등

다. [B2G]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협력

1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협력

○ **(정책 수요) 국가 에너지 정책**(Plan Energetico Nacional 2015-2050) 발표

– 주요 골자는 △**지방도시 전력 배급망 구축 및 공급 확대**, △에너지 안보 전략, △**에너지 탈 탄소화 추진**, △효율적 사용 및 절약 등

– 주재국 전체 전력생산 대비 수력 발전 비중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 → 에너지 탈탄소화 기조는 유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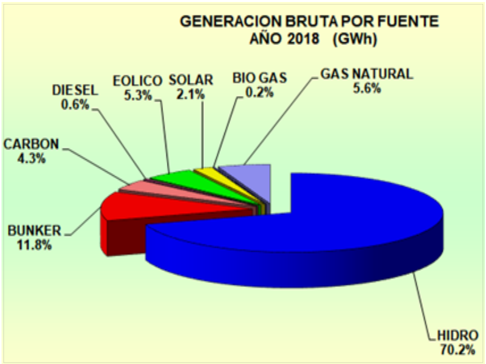
* 수력 발전은 '연중 강수량 변화, 운하 확장 등 고정수요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담수량 확보 애로

○ **(시장 현황)** 전체 전력생산 대비 에너지원별 생산 비중은 수력(70.2%), 화력(22.2%), 풍력(5.3%), 태양광(2.1%) 순으로 수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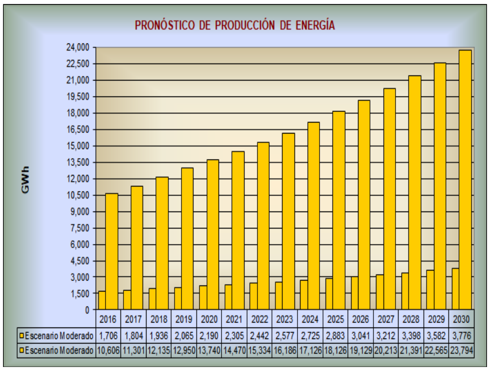
– 주재국 전력 생산량은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 中, 2030년에는 현재의 약 2배 규모인 23,800 GWh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력청 주도, 지방도시 전력 공급망 구축을 통해 가정용소비 점진적 확대 전망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



향후 전력 생산량 추이



ㅇ **(협력 전략) 공공 발전사와 기술협력, MDB·ECA 등 특수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유도 민관 공동 컨소시엄** 구성

– '대규모 예산 투입, 중장기 수익 창출 구조' 등 분야 특수성 고려

라. [국민] 상호 관광 진흥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

1 상호 관광 진흥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

ㅇ **(정책 수요) 파, '관광내각 설치, 관광진흥기금 확대'** 등 주요 산업으로 육성 → 국가 관광전략 수립, 건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국제 마케팅 캠페인 추진

* 국별 관광경쟁력 순위 : 중남미 4위, 세계 9위(관광정책 및 기반조성 지표)

ㅇ **(시장 현황)** 양국 모두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자원, 교통 인프라' 보유, 역내 MICE 강국 → 민간을 넘어 비즈니스 관광 수요 또한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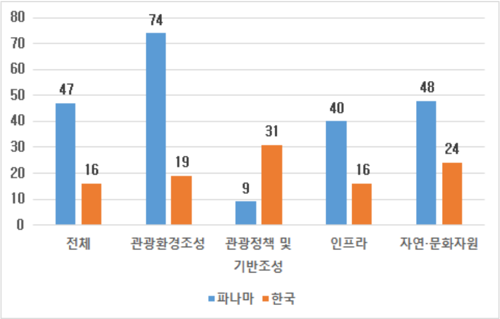
– 파나마, 중남미를 잇는 지리적 위치 활용 **'역내 항공교통 Hub'** 역할 → 전통적으로 국제 포럼, 대형 전시회 개최지로 자리매김

* 중남미 1위 항공사 코파항공(Copa airlines) 본사 또한 파나마 내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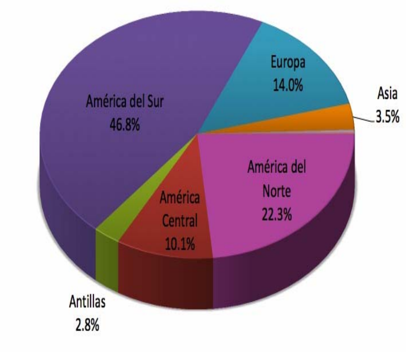
– 한국, **'민간·중앙정부·광역 및 기초지자체' 합동 관광 산업 육성 노력** → 국가별 관광경쟁력 순위 도약 中, '29위(2015) → 19위(2017) → 16위(2019)'

* 국제협회연합(UIA) 발표, 한국은 국제회의 개최 수 '세계 2위'

국별 관광경쟁력 순위



방파 외국인 관광객 비중



○ **(협력 전략)** 양국 공통 수요 활용 **MICE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선행, 점진적 민간 관광프로그램 개발 확대 및 대대적 홍보 추진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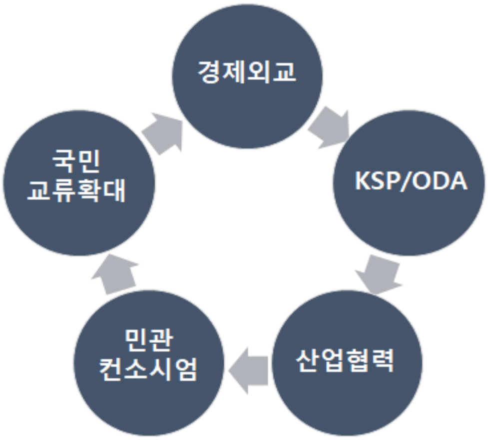
Ⅲ. 향후 대(對)파나마 K패키지 실행체계(안)

1 '한-파' 다각도 경제협력 소통기구, 'KOTRA' 사무국 형태 운영

- 무역관을 및 경협 아젠다 **초기 개발 단계 소통기구**로 활용 → 추후 경협 과제 추진 시 무역관 內 담당부처 통합 One Roof 시스템 구축

'한-파'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K패키지

〈한국〉	양국 추진주체 및 아젠다	〈파나마〉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경제재무부(MEF)
외교부(주재공관)		외무부(MIR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산업부(MICI)
농촌진흥청		Proinvex
한국정보화진흥원		혁신청(AIG)
보건복지부		보건부(MINSA)
보건산업진흥원		공공사업부(MOP)
상공회의소		농상공회의소(CCIAP)
공공발전사		운하청(ACP)
수출입은행		미주개발은행(IDB)
무역보험공사		중미개발은행(CABEI)
한국관광공사		관광청(ACP)
기업		기업
국민		국민



'KOTRA'
'사무국' 형태 운영 → 경협안건 개발 및 초기 소통 지원

2 [향후과제] 추진 주체별 수요 종합 국가 차원 K패키지 수립 → 순방 시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부처/유관기관/기업 등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국가 차원 K패키지 마련**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全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박대훈**	과장	파나마무역관	507-264-8105	dhp@kotra.or.kr

KOTRA자료 20-094

2020 국별 진출전략 파나마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40-8(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